

인권, 인간다움을 누리기 위한 권리

김종철

1. 20세기 인권의 시대

계몽주의 이후에 철학자들에 의해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유엔 헌장을 보면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연합의 목적인 제1조를 보면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948년에 역사적인 인권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이 나옵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만들어 집니다.

그 이후 20세기 말은 정말 인권에 관한 조약과 그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자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난민협약 등의 유엔인권조약이 만들어져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권 관련 조약과 국제규범 이행을 위해 각 조약별로 모니터링 기구를 두어 국가가 정기적으로 그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들은 그 기구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년 마다 1회씩 193개의 전체 유엔회원국가가 모든 유엔인권규범의 이행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지역별 또는 주제별로 인권전문가 내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의 청원을 심사하고 관련 국가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던 2001년을 기점으로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주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가도 인권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금지어입니다. 작년에 해외 개발 때문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감시 때문에 관련 NGO를 만나는 것은 어려웠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당부 받았던 것은 인권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충분한 지지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인권을 이야기는 것이 맞는가? 권리 주장을 하는 것 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인권 보다는 바른 질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인본주의적 혹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2. 기독교와 인권이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인권들 human rights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많은 경우 (물론 역사적으로 인권 침해를 성경으로 정당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교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성과 아동의 권리, 평등권,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이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왜 그러한 인권들을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있어서 기독교가 결정적인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인권들을 보장 받아야 하는 근거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계몽주의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볼 경우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성의 활동이 퇴화된 노인들의 존엄성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잔혹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 한 것이 이런 인간관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할 경우, 서구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그 당시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은 sub-human 내지 non human 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해 신학적인 기초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낼 수 없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여된 가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엄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 토끼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늘 잘 때 끼고 자는 인형입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친구의 딸이 쓰던 것을 물려받았는데, 그 인형의 귀가 한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어떤 다른 인형이나 장난감 보다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인형은 볼품이 없습니다. 다른 최신식 인형에 비해서 나올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귀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형이 귀한 것입니다. 인형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부여된 가치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인권을 누려야 합니까?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의지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계몽주의가 인간의 존엄성 설명과 같은 문제점에 부딪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먼 곳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대리자를 세우고 그를 자신의 형상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신 죽으심 역시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보다 인간의 존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어떤 인간도 존엄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그 정도로 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할 때 개신교와 카톨릭 사상가와 활동가들은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유엔을 만들려고 할 때, 인권 논의가 무슨 필요 있냐고 생각하는 각국 대표단들이 많았고, 인권선언이나 인권조약의 초안을 만들 유엔인권위원회 설립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루터신학교 교수인 프레드릭 놀드와 WCC의 대표단들이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살려냈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이후 세계인권선언(놀드와 WCC 그리고 Church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Affairs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인권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이 나왔을 뿐 아니라 인권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하나님이나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놀드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호소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였고, 그 입장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의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크 마리탱으로 대표되는 신토마스 학파에 의한 자연법 사상이 당시 인권담론에 크게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그의 입장은 많은 사람들, 특히 남아메리카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할 때 그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개별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이 나오는 데에도 혁혁한 공을 올렸지만 이러한 점은 왜 기념/기억되지 않고 인권이라는 것이 기독교와는 생소한 개념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앞에서 기독교가 인권을 이야기 할 때 나올 수 있는 반응 중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인본주의적 혹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이고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휴머니즘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타락의 핵심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착함에 이르는 것, 진리에 이르는 것,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휴머니즘은 다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애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문주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휴머니즘이라는 육조에서 잘못된 의미의 인본주의라는 물을 버리면서 좋은 의미의 휴머니즘(인간다움)이라는 아기까지 같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표현서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것이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인간성humanity,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나요? 같은 맥락에서 인간다움(인간성)은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스 루크마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쟁이가 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인간다움, 인권을 이해하는 열쇠

저는 이 인간다움이 인권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인간답기를 well being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답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고well going, 인간다운 대접을 하기를 well doing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답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접(권리)입니다. 인권이란 그것이 없을 경우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은 것이고, 즉 well going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성취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인간답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침해당할 때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접(권리)이 인권이라고 할 경우, 그 인간답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 인권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해방하신 분이시고, 또 그 분이 역사의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면 인간다움이라는 과연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타락하기 전의)인간의 인간다움이 그 디자인 되었던 대로 성취되는 곳(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well being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받아야할 최소한의 대접이고, 가장 인간다운 것, 우리의 well being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실현된다고 할 경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인간다움이 성취되는 상태가 어떤 것이고, 인간의 well being이 실현되는 상태가 어떤 것이

고, 즉 인간다움이 무엇이고, 인간의 well being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이 샬롬이란 무엇입니까? 전쟁(폭력)과 착취 때문에 약자들이 희생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부의 양극화 때문에 일부가 결핍으로 배고프고 죽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영적인) 병 때문에 고통과 장애를 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차별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압제 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 이야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해방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라는 미가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 노는 동산과 교제와 풍성한 음식이 있는 잔치라는 그림언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몸소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메시아적 과업,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과업을 시작하십니까?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을 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산상수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말씀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때로 강자들의 탐욕과 착취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억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 이외에는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 약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불의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에 대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너희들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어린 죄인이고 우리는 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아이들처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 하다는 것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그렇게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고는 도움의 손길을 도무지 찾기 어려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몸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2:16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라고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을 세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11:19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죄인 그룹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41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처형을 위해 넘겨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법 밖에 두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스스로 이방인이 된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가장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이렇게 그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렇게 배제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병으로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해방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말씀,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을 시작하고 계시고, 애초에 디자인하신 인간다움을 실현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다움이 온전히 회복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답기 위해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답다는 것이 어떤지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살롬의 나라인데, 그 살롬은 하나님의 해방 이야기,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인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미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기 well being 위함은 누려야할 최소한의 대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well being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한 살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갇힌 자들이 풀려 나도록 하는 일, 부당하게 사람이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일, 전쟁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일, 전쟁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박해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차별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폭력과 착취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가난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이고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권을 누려야 할 이유가 존엄하기 때문이고 그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을 위해 고통 받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답기를 요구하시는데,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받아야할 최소한의 대접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러다면 인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인간다움이 온전히 회복되고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해방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죄인들(배제된 자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권운동은 어떠한 점에서 일반 인권 운동과 차별화 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인권이 위와 같이 근거 지워질 경우 실천적인 면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5. 기독교 인권 운동의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인권은 불가분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홀리스틱 해야 합니다. 불가분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인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 경제, 문화, 시민적 측면의 모든 인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참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영역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아의 권리, 종교의 자유 이런 공화당 아젠다에만 관심을 갖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이라면, (물론 자원의 한계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전반에 대해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인권을 위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의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누리도록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다 더 진보적이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보수보다도 더 보수적이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일관성이 아니라 성경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이 존엄하다면 태아의 생명 뿐 아니라 사형수의 생명도 존엄하고 이라크인의 생명도 존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리 때문입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입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형폐지를 지지하고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일관된 것입니다.

앞에서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제대로 인간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답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접이 인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관점에서 인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도 소용없고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회복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잘못되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해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신 이 땅이 타락했다고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할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으로서 인권 운동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권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어로 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동사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주어로 해서 쓸 수 없는 동사들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동사는 “참여한다”. “산다”. “들어간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시는 나라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므로 인권운동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의 운동으로 마치 유토피아를 완성하겠다는 태도로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 될 때까지는 어디에나 인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부인되고 인간다움이 훼손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동시에 “이미 그러나 아직”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에 무감각해져도 안 됩니다. 이런 악함을 보고 다윗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보노처럼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저는 슬픔이 질렸고, 고통이 질렸고, 평화가 땅에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질렸

습니다”우리도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약자들과 배제된 자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과 연대해서 “주여 언제까지 이니이까”라고 같이 울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인권운동은 이상적임과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취이므로 래디컬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최악을 피하고 반걸음의 진보라도 이룰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타협적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거시적인 구조악과 미시적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시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이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주는 노력 이외에 거시적인 구조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해외개발원조와 관련해서 이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모두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한국의 ODA 자금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을 하였던 캄보디아의 프놈펜이었습니다. 물론 ODA 자금이 들어가서 건물도 짓고 도로도 닦게 된다면 거시적으로 숫자로 보이는 개발의 성과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그러한 무분별한 개발과 토지 수용으로 그 토지에서 몇 대에 걸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 이주되고 산에 버려지거나 수용소 같은 시설에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한국의 개발 NGO들이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분명 물을 구하기 힘든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는 못한다면, 이러한 우물 파주는 사업은 강제이주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뿐 아니라 그 분 자체가 몸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관해서 일하는 방식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평화로와야 합니다.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통합진보당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운동권들이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투쟁을 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 비민주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활동가들의 인권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인권운동을 하다보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활동가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내에서 인권 담론이 크게 환영 받지 못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주장이 아니라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인간다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가 해방된 이후에 그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귀를 뚫는데, 그 주인은 그 노예가 처음부터 계속 노예로 살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해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자유인이 된 그 사람이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아웅 산 수지는 우리에게 “당신들의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의 자유가 증진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특히 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내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마틴 루터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군주 중에 가장 자유로운 군주이며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종종에 가장 충실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높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아무런 필연성이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인권을 다 누리기를 마다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자유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는 군주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깨달음을 거치지 않고 성급히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는 것으로 넘어갈 경우 작게는 피해의식에 시달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크게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강요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위에 합당한 자유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쓰려고 하는 자유가 그 다음입니다. 후자가 더 고차원적인 것이지만 우선 전자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린다는 거 자체가 우선적으로 그분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권의 담지자라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인권을 다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인권과 관련해 우리의 관심은 인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점은 나에 대해서도 그럴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권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다움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인데, 인권은 인간답기 위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하는 대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에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것과 인간다운 대접을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내가 남을 인간답게 대접하지 못할 때 그 사람도 비인간적이 되며 나도 비인간적이 됩니다. 또 내가 인간다운 대접을 남에게 하지만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에 나는 인간답지 못하게 되며(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만 다른 사람을 인간답게 대접하지 않아도 나는 인간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너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누가 인간답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인간다운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인권 운동은 결국 나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

(나, 나의 동료, 의뢰인, 상대방)이 인간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된 것을 고쳐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서 인간답지 못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구제받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도록 도와줘서 그들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상대방은 인간다운 대접을 남들에게 하지 않아서 인간답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단지 망하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남들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하도록 하여 그들도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웰비잉, 웰고잉, 웰두잉

지금까지 인권을 인간다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는데, 이 인간다움을 누린다는 말은 웰비잉(well-being)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웰비잉이란 무엇인가? 저는 웰비잉은 웰고잉(well-going)과 웰두잉(well-doing)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웰비잉(인간다움을 누리기)을 위해서는 웰고잉(인간다운 대접을 받기)이 있어야 하고, 웰두잉(인간다운 대접을 하기)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일이 잘 풀린다고 그 삶이 웰비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경우(웰고잉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웰비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공익 변호사의 관점에서 웰고잉이란 최소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not being wronged)이고 나아가서는 돌봄을 받는 것(being cared)입니다. 그리고 웰두잉이란 최소한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not wrong doing)이고 나아가서는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caring). 따라서 내가 웰비잉하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웰고잉하는가(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돌봄을 받는가) 그리고 웰두잉하는가(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웰비잉하고 있다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웰비잉해야 합니다. 나와 일하는 동료들, 나와 동료들이 돕는 의뢰인들도 어필을 통해서 웰비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어필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여 웰두잉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헌신을 요구당하면 동료들은 웰고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웰비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웰비잉의 공식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권 침해자의 웰비잉을 위해서도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인권 침해자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그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를 한다면(즉 웰두잉한다면), 인권 침해자들은 웰비잉에 한 층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인권 침해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 침해자들의 웰비잉까지 도모한다는 것이 너무 낭만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불러 교제하시고,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셨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다르게 일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어필이라는 단체가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나와 동료와 의뢰인과 싸움의 상대방이 웰비잉하고 있는

가, 즉 모두가 인간다움을 누리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평화를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평화롭게 일하는 것과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이지 우리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도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제 주위의 이 모든 것에 질렸습니다
슬픔이 질렸고
고통이 질렸고
평화가 땅에 장차 임할 것이라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것이 질렸습니다

Heaven on earth
we need it now
I'm sick of all this hanging around
sick of sorrow
sick of pain
sick of hearing again and again that there's gonna be Peace on Earth

- U2 보노(Bono)의 〈Peace on Earth〉 중에서